OPEN ACCESS

#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제고*

## - 이용자 교육 향상 전략 -

# Enhancing the Educational Role of Academic Libraries: Strategies for Improving User Education

정 영 미 (Youngmi Jung)**
강 지 혜 (Ji Hei Kang)***
이 정 미 (Jeong-Mee Lee)****

## 초 록

대학도서관은 소속 대학의 교육적 사명을 지지하는 기관으로서 구성원의 학습과 연구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같은 이용자 교육을 직접 수행해왔다. 디지털 전환과 정보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은 대학 구성원의 학술적 성취를 돕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최신 이용자 교육 사례와 대학 관리자와의 서면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의 변화 방향성과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공별 및 학습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검색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교수진 및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다학제적 연계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교과과정과 연계된 이용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을 넘어 이용자 교육의 향상을 통해 대학 내에서 교육적 역할을 제고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Academic libraries have served as institutions that support the educational mission of their affiliated universities by not only facilitating learning and research activities but also directly providing user education, such as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formation environment, user education in academic libraries has become an essential factor in fostering the academic success of university members. This study aimed to enhance the educational role of academic libraries by analyzing recent user education cas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libraries and synthesizing the results of written interviews with university administrators. Based on the findings, four key strategies were identifi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user education in academic libraries. First,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strengthened to cultivate students' ability to critically evaluate reliable information and use it ethically. Second,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s that reflect the diverse needs of users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differentiated education according to academic disciplines and learning stages. Third, education on information retrieval and evaluation capabilities should be enhanced by utilizing AI and big data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Fourth, collaboration with faculty and researchers should be promoted to establish an interdisciplinary education model and activate user education linked to the curriculum. This study presented strategic directions for academic libraries to transition from mere information providers to key educational institutions, thereby reinforcing their educational role and institutional standing through improved user education.

키워드: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정보 리터러시, 정보활용능력교육, 교육적 역할
Academic Library, User Education,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Educational Role

---

* 본 연구는 2024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메타리터러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역량 설정 및 체계 개발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mjung@deu.ac.kr) (제1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jhkang@dongduk.ac.kr) (공동저자)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mlee@sw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5년 2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3월 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1): 277-301,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1.277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가치와 위상은 실제 어떠한가? 학술적이고 소위 정제된 지식 정보조차 인터넷의 그 어딘가(실제로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도구는 참고 사서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신속하고 풍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외부의 상황과 맞물려 내부적으로는 예산 축소와 인력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단순한 위상 변화가 아닌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서관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론은 더 이상 새롭거나 놀라운 논제가 아니다. 일찍이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학술적 논의는 다수 진행된 바 있다(이시영, 2010; Sullivan, 2011). 심각하게는 대학도서관을 종종 "활용되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저장 공간" 정도로 평가절하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Mullins & Boyd-Byrnes, 2024, 424).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최근 대학도서관은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존재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그동안 안팎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왔으며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을 지원하며 시시각각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학도서관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왔다. 다수의 연구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대학도서관 내부 서비스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심해 왔다(윤유라, 정영미, 2023; 이종욱 외, 202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ACRL: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는 대학도서관이 어떻게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서관계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도서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도서관의 기여 홍보, 도서관 평가를 대학의 사명과 일치시키기, 도서관 데이터를 대학 데이터 시스템에 포함, 도서관의 학생 성공 기여에 대한 계량화, 교육 및 학습 환경 강화, 교육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다(ACRL, 2017, 2-9). 이러한 접근 전략은 대학도서관의 외부와의 강력한 연결과 대학도서관의 교육서비스를 통한 대학의 사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가치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대학도서관의 교육 및 학습 환경 강화 전략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전략의 주요 실행방안은 교수 및 학생과 협력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제공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60개 이상의 대학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에서도 위의 전략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전략과 조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주요 전략으로 연구자와 학생 대상의 정보 리터러시 교

육 확대를 통해 연구데이터 해석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Cooper et al., 2022,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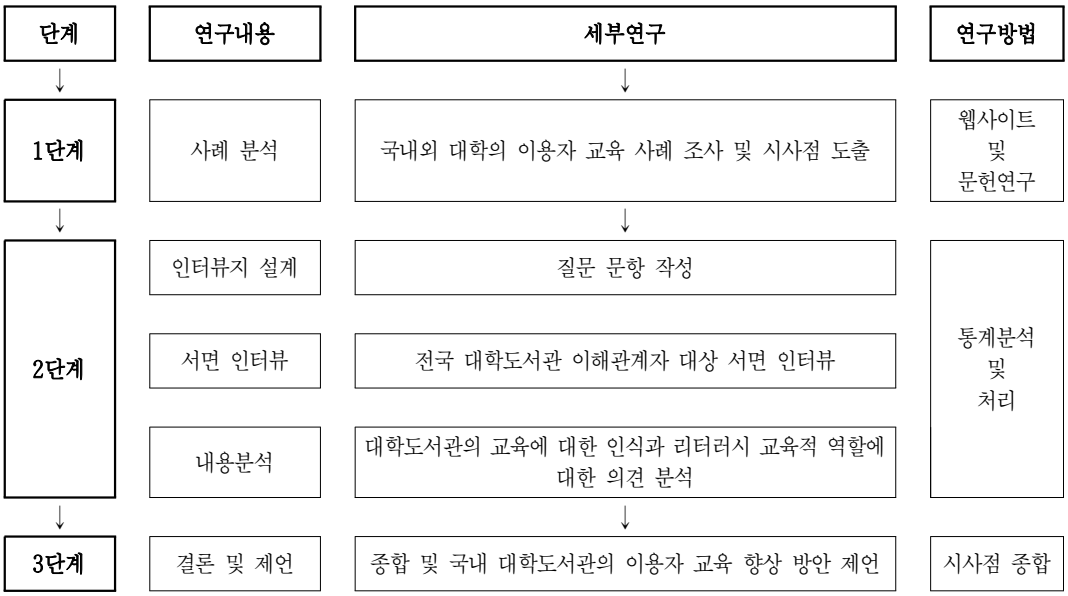
2024년 3월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제3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24~2028)도 대학도서관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 지원서비스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적 디지털 역량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계획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추진 과제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 생성형 AI의 효과적·윤리적 활용 지원, 리터러시 통합 진단 도구 개발 및 솔루션 제공, 문해교육 및 기초소양 학습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4, 10-11).

주지하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학도서관 미래 전략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 기관을 넘어, 대학의 사명에 맞춰 학생들의 학습과 성공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복수의 연구자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을 진단하고 교육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다수의 연구가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교육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김령은, 이제환, 2017; 이지영, 2014; 정미정, 권나현, 2014). 이지영(2014)은 사서 대상의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분석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등장과 함께 AI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정미, 2023; 장수현, 남영준, 2023). 즉, 최근에는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사례 분석을 통한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연구가 다소 미미하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도서관 내부의 시각에서만 수행되어,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의 시각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의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고자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여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다른 하나는 대학 관리자(부총장 등 본부 보직자와 대학도서관 관장)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앞으로의 교육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및 연구내용

## 2.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기준 및 사례 분석

### 2.1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의 기준 및 적용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은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대학 교육의 변화 발전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 형식과 방법이 진화하였다. ACRL은 2000년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능력(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으로 5개 기준과 22개 성과지표, 87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기존의 2000년 리터러시 기준을 대체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Higher Education)'를 채택하여,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ACRL, 2000; ACRL, 2016).

ACRL의 2000년 정보 리터러시 능력 기준은 고등교육에서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습자가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5개 표준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정보 필요성 인식(determining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information needed),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보 접근(accessing informat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정보의 평가 및 선택(evaluating information and its sources critically), 특정한 목적에 따른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using information effectively to accomplish a specific purpose), 법적・윤리적 정보 활용(understanding economic, legal, and social issues surrounding the use of information)으로 이용자 교육을 위해 이용자가 갖추어야 할

정보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기준과 기술적 역량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CRL, 2000).

ACRL은 2016년에 기존의 2000년 리터러시 기준을 대체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용자 교육을 위한 정적인 역량 기준이 아니라, 대학도서관 교육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사고방식과 정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ACRL의 2016년 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는 6개의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는 구조화된 연구 과정의 일부(authority is constructed and contextual)이며 정보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정보 창출은 하나의 과정(information creation as a process)이며, 정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성되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정보는 가치가 있으며(information has value),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저작권과 정보 윤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넷째, 연구는 탐구 과정(research as inquir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연구는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 프레임워크가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들을 위해 발표된 만큼 대상 이용자인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이용자의 일상 활동으로서의 '연구'라는 개념에 대한 구체화된 설명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 검색은 전략적 탐색(search as strategic exploration)이라 명시하고 효과적인 정보 탐색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여섯째로, 학문적 소통은 공동체 활동(scholarship as conversation)임을 명시하며 학문적 지식은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발전하며, 학습자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ACRL, 2016).

앞서 살펴본 ACRL의 두 표준을 비교해보면 오늘날 변화된 정보 리터러시 역량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ACRL의 2000년 표준은 정보 리터러시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성취 기준과 기술 역량 중심으로 정의하고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지만, 2016년 프레임워크는 학습자의 사고방식과 맥락을 고려한 개념 중심 모델로 정보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맥락과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등교육에서 정보 리터러시가 단순한 정보 기술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학문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대학도서관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이용자 교육은 특정 기술을 익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시대와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광범위한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ACRL의 2000년 기준과 2016년 프레임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각각의 구조, 개념 제시 방식, 정보 활용에 대한 접근 방식, 평가 기준,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ACRL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

〈표 1〉 ACRL의 2000년 기준과 2016년 프레임워크 비교 분석

| 구분 | ACRL 2000년 정보 리터러시 기준 | ACRL 2016년 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
|---|---|---|
| 구조 | 고정된 5개 기준과 각각의 성취 지표 | 유연한 6개 개념 중심 모델 |
| 접근 방식 |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역량 중심 |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중심 |
| 정보 리터러시 개념 | 정보 탐색, 평가, 활용의 기술 강조 | 정보의 생성, 권위성 판단, 가치 인식, 검색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탐색 |
| 평가 기준 | 정보 리터러시 능력에 대한 특정 기준과 측정 가능 지표 제공 |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참여를 강조하는 개방적 접근 |
| 학습 과정 | 개별적인 기술 습득 | 학습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협력 및 탐구를 통한 성장 강조 |

드라인(Guidelines for Instruction Programs in Academic Libraries)'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적 사명과 조응하기 위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육 지원 체계, 효과적인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핵심 요소 등을 제공한다. 효과적인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핵심 요소로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단계적 학습 목표(신입생, 전공별 과정, 졸업생 등 연속적인 정보 리터러시 학습 과정) 설정, 다양한 교육 방식 활용, 충분한 재정 및 인력 지원 확보, 교수진 및 학내 부서와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ACRL, 2011).

국내의 경우, 개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대학도서관의 정보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역량 요소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국가적 수준 혹은 단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 분야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2.2 해외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사례

본 연구에서는 북미지역의 주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 교육 사례를 조사하였다. 2024년 10월 한 달간 이들 대학도서관의 웹 사이트에 수시로 접근하여 어떤 주제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평가 기준으로서 앞서 살펴본 ACRL의 2016년 프레임워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고 있는지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포인트 중 하나이다.

미국 코넬 대학교 도서관(Cornell University Library)은 ACRL의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학생들이 정보의 권위와 맥락을 이해하고, 정보 생성 과정을 인식하며, 연구를 탐구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적이다(이지수, 이혜은, 2019). 또한 인문학 공학 통합세미나를 통해 역사 자료 분석시 AI 도구 활용 사례를 연구하거나 과제 평가 기준에 리터러시 요소를 반영하는 등의 교수-사서 협력에 기반한 연계 융합 협업 지원 프로그램인 'Disciplinary Research Support'(https://mann.library.cornell.edu/disciplinary-research-support)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 기술 차원의 이용자 교육을 넘어 문제 해결의 창의적 과정과 방법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매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도서관의 리터러시 교육 및 연관 서비스는 모두 도서관의 Research & Learning 서비스 메뉴에 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https://www.lib.umd.edu/research). 주요 서비스는 주제전문가 상담, 연구서비스, 이벤트&워크숍, 교수&지도, 오픈스칼라십서비스, DRUM(매릴랜드대학교 디지털 리파지토리), 데이터 서비스의 7개 주제로 구분된다. 이 중 연구서비스, 이벤트&워크숍, 교수 & 지도, 데이터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도서관의 다양한 이용자 교육 사례를 종합하여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에는 대학생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기본적인 인식과 현재 지식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메타인지 및 태도 영역의 교육 사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Teaching & Learning 서비스 메뉴에 종합하여 제시되고 있다. Teaching & Learning 서비스는 표절 인지, 교육 및 학습 도구, 학습 파트너, 협업(파트너십 성공사례: 교과목 연계 융합사례, https://lib.uw.edu/teaching/examples/)라는 4개 주제의 교육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학습 파트너 메뉴는 ACRL 2016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탐구 과정으로서의 연구 및 학문적 소통 공동체와 같은 개념을 반영한 이용자 교육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이 자신의 연구 주제나 정보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 및 융합을 목표로 한다.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이 자체 서비스로 학습 파트너 메뉴를 제공하면서 교내 연구소 및 센터와 연결하여 학문 간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더불어 교내 교과목과의 연계 등 도서관 사서와 교내 교육과정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성공 사례를 하나의 메뉴로 제공하여 교내 도서관-교육과정의 연계 융합 결과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미국 UCLA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도서관은 방대하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Services & Resources라는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종합하여 제공한다. 이 중 'WI+RE(Writing Instruction+Research Education, https://uclalibrary.github.io/research-tips/about/)'는 UCLA 학생들이 공동 설계한 개방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연구 및 저술 작성을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튜토리얼 서비스이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탐구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 서지에 주석을 다는 기법, 표절을 방지하는 올바른 인용 방법 등 고등교육자로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지식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 도서관은 대학 내 연구자의 정보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ACRL 2016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탐구과정으로서의 연구 및 학문적 소통 공동체 개념을 반영한 흥미로운 이용자 교육 사례로 살펴볼 만하다. 퍼듀대학교 도서관의 연구 지원 서비스는 다른 대학도서관만큼 방대하지는 않지만, Research 메뉴(https://infostudies.purdue.edu/research/)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구자 지원 서비스와 이용자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메뉴에는 Research Excellence Areas(REAL), Research Data, GIS Services, Publishing Services, Graduate Information(G.R.I.P), D-VELoP, LibKey Nomad++ 등의 연구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REAL은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및 이용자 교육을 우수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AL은 정보 중심 교수학습, 지식 융합 및 체계적인 주제분야 리뷰, 연구데이터 관리, 특정 정보 주제라는 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직·간접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연구자의 현실적인 연구 환경을 고려하여 도서관 전문가의 개별 지원 없이도 학문적 소통, 연구 지원, 교육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내 정보학과 등 유관 학술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지속하여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질적인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본 ACRL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이용자 교육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협력 학습모델, 비판적 정보 리터러시 교육, 특정 주제 리터러시 교육, 평가도구로의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Fullard (2016)는 ACRL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교수진과 협력하여 학습을 촉진하는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도서관이 교수진과 협력하여 프레임워크의 개념을 교과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정 과목에서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강의 및 워크숍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ullard, 2016). 캐나다의 대학에서는 ACRL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비판적 정보 리터러시(critical information literacy)를 교육하는 접근법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방식과 교수법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한 검색 기술을 넘어서 정보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Schachter, 2019). Withorn과 그의 동료들의 2019년 연구는 음악전공 학생들에게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ACRL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연구와 창의적 작업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조정하였으며, 도서관과 학과가 협력하여 ACRL 프레임워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Withorn et al., 2019). 대학도서관에서 ACRL 프레임워크를 평가 도구로 활용하는 연구도 발표됐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기술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RL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평가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affrey et al., 2023).

### 2.3 국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사례

해외 대학도서관 사례로 연구중심의 대학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국내 대학도서관 사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을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은 각 대학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2024년 10월 기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술연구지원 주제 아래 '도서관 이용 교육'을 종합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교육의 경우,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학술정보검색,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교육, 논문작성 및 투고, 연구업적 관리, 기타 특강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Research Guides: 논문 작성 A to Z' 메뉴를 통해 논문 작성 시 연구자가 활용 가능한 도구 및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학과별 가이드를 별도로 제공하여 각 학문 분야별로 적합한 정보원을 제시하고, 해당 정보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학문 주제별 맞춤형 이용자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https://library.yonsei.ac.kr/bbs/list/39)은 Research와 Education 메뉴에 각각 정리되어 해당 주제의 적절한 교육자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정보활용, 논문작성/투고, 도서관이용, 공개특강, 기타라는 5개 주제 구분을 바탕으로 이용 교육 신청이 바로 가능한 캘린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캘린더는 이용교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또한 정기적・상시적 이용자 교육과정으로 학술정보 워크숍, 연구분석 교육, 연구력 강화 워크숍, 표절예방 프로그램 활용 교육 등과 같은 학술정보 연구 역량 강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신 기술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아래 DX아카데미(통계, 생성형 AI, 파이썬 및 데이터분석 등), AI챌린지, 코딩캠프 등의 이용자 교육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상시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정보 및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이외의 대부분은 최신 정보기술 주제를 이용자가 이해하고 익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정보기술 탐색 및 활용을 위한 과정이 도서관 이용 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리터러시 교육은 연구학습지원 메뉴(https://libguides.knu.ac.kr/) 아래 학습지원, 연구지원가이드, 연구지원서비스, 이용 교육, 서지관리(EndNote...), 표절예방(Turnitin) 등의 세부항목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지원가이드는 연구단계별가이드, 학과별 주제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연구단계별 가이드의 경우 연구수행의 단계에 따라 유용한 정보 및 이용자 교육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중 이용 교육은 학술DB이용 교육, 도서관 이용 교육, 이용 교육동영상, 맞춤형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외 EndNote, RefWorks, Mendeley 활용법과 같은 서지관리 교육 항목과 참고문헌 작성방법을 별도의 교육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표절예방을 위

한 Turnitin 활용법도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리터러시 교육은 연구학습지원 메뉴(https://lib.pusan.ac.kr/) 아래 해당하는 세부 메뉴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제공하는 이용 교육은 신입생교육, 정보활용교육, 학술DB교육, 방학 특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시기별, 내용별로 대학내 이용자의 수준에 따라 구성하고 있으며 학술연구를 위한 이용 교육이 종합적으로 설계,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대학교는 학술정보 지식콘텐츠 플랫폼 'SAM 가이드'를 운영하면서 학습, 연구, 자기계발, 소통의 4개 대주제에 적절한 정보자료 및 리터러시 교육자료,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연구 학술 주제를 위한 정보자료 활용뿐만 아니라, 복잡한 연구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용자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콘텐츠는 단순히 학술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이슈,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이 기술적 역량 향상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은 북미 대학도서관의 사례와 비교할 때 기술 활용 역량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데이터의 중요성과 오픈액세스로의 학술커뮤니케이션 전환에 따라 연구 과정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및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용자 교육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 3. 대학 관리자의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 3.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의 본부 보직자와 도서관 관장 등 대학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대학 관리자가 대학의 교육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의 교육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이에 부합하는 이용자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들은 적절한 방향성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이해관계자로서 대학의 관리자가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에서 대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서면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서면 인터뷰를 위해 질문지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문항 구성은 본 연구와 조사 대상자가 유사한 ACRL(2017)과 Cooper et al.(2022)의 보고서 분석 항목과 ACRL(2011)의 가이드라인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응답자에 대한 영역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

성과 직무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총 7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소속 대학의 유형과 규모, 대학이 위치한 지역, 도서관 근무 경력, 직위 등을 조사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직업적 배경이 설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대학도서관의 통합적 리터러시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객관식과 함께 상세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모두 서술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지의 구성 문항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인터뷰 대상자는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눈덩이 표집(snow balling) 기법으로 추가적인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총 26명의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명에게서 완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학 관계자는 본부 보직자(총장, 부총장, 처장 등)와 도서관 관리자(관장, 부관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였다. 우선 대상자에게 유선/대면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자의 의도를 배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답변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 3.2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0%, 여자가 30%로 구성되어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과 40대가 각각 25%, 30대는 5%로 나타났다.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중년 이상의 연령이 다수 참여하였다. 소속 대학의 규모는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이 40%(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소속 대학 지역 분포는 "수도권"이 35%(7명)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표 2〉 설문지의 구성

| 측정 영역 | 내용 | 문항 수 |
|---|---|---|
| 응답자 특성 | • 성별, 연령, 소속 대학 유형, 소속 대학 규모, 소속 대학 지역, 도서관 근무 경력, 직위 | 7 |
|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 • 대학도서관 프로그램별의 중요성<br>•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br>•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개선 내용<br>• 교육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br>• 대학도서관의 교육 발전 방향 | 5 |
| 대학도서관의 통합 리터러시 교육적 역할 | • 통합 리터러시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의 중요성<br>• 통합 리터러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기능의 중요성<br>• 통합 리터러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br>• 통합 리터러시를 학습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지원 내용<br>• 교육부나 KERIS의 지원내용 | 5 |
| 기타 | 기타 의견 | 1 |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 항목 | | 빈도(n) | 퍼센트(%) |
|---|---|---|---|
| 성별 | 남성 | 14 | 70 |
| | 여성 | 6 | 30 |
| 연령 | 30대 | 1 | 5 |
| | 40대 | 5 | 25 |
| | 50대 | 5 | 25 |
| | 60대 이상 | 9 | 45 |
| 소속 대학 규모 (재학생 수) | 5,000명 미만 | 2 | 10 |
| |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 8 | 40 |
| | 10,000명 이상 - 15,000명 미만 | 3 | 15 |
| | 15,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 4 | 20 |
| | 20,000명 이상 | 3 | 15 |
| 소속 대학 지역 | 수도권 | 7 | 35 |
| | 부산/울산/경남권 | 3 | 15 |
| | 대구/경북권 | 0 | 0 |
| | 충청/강원권 | 6 | 30 |
| | 전라/제주권 | 4 | 20 |
| 대학 근무 경력 | 5년 미만 | 0 | 0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 | 15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 | 20 |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3 | 15 |
| | 20년 이상 - 25년 미만 | 3 | 15 |
| | 25년 이상 - 30년 미만 | 5 | 25 |
| | 30년 이상 | 1 | 5 |
| 직위 | 본부 보직자(총장, 처장 등) | 10 | 50 |
| | 도서관 관리자(관장, 부관장 등) | 6 | 30 |
| | 기타 | 4 | 20 |

의 근무 경력 분포는 “25년 이상 - 30년 미만”이 25%(5명)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직위는 “본부 보직자(총장, 처장 등)”가 50%(10명)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 관리자(관장, 부관장, 팀장 등)”가 30%(6명)로 나타났다. “기타”는 4명이 선택하였는데, 교앙대학 학장 및 인문학 관련 연구소장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상세한 통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 3.3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 3.3.1 대학도서관 프로그램별 중요성

조사에서 대학 관리자는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리터러시 교육(평균 4.55점), 디지털 역량 강화(평균 4.35)와 개인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평균 4.35점)이 학문적 성장과 실제 역량 개발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 리터러시 능력과 학업 성과 향상에 필수적이며, 디지털 역량은 21세기 학습 환경에서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매우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사회적 독서)(평균 4.2점), 학습윤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균 4.15점), 교과 연계형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균 4.0점) 역시 평균이 4점 이상이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진로탐색-설계-개발을 지원하는 진로 교육서비스 강화 (평균 3.9점)와 직무별 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평균 3.6점)이 평균 4점 이하를 나타내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균이 가장 낮은 부분은 직무별 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평균 3.6점)으로 도서관이 직접적으로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리터러시 교육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5%(13명)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으며, 25%(5명)는 '중요하다', 10%(2명)는 '보통이다'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대학도서관의 리터러시 교육서비스 확대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의 응답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리터러시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대학도서관의 필수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3.2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서술식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리터러시 교육과 학습지원"이 16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대다수 응답자들은 대학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리터러시 교육을 꼽았다. 특히,

〈표 4〉 대학도서관 프로그램별 중요성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중요하지 않다 | | 보통이다 | | 중요하다 | | 매우 중요하다 | | M | Std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 리터러시 교육서비스 확대 | 0 | 0 | 0 | 0 | 2 | 10 | 5 | 25 | 13 | 65 | 4.55 | 0.69 |
| 체험・실천형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 0 | 0 | 0 | 0 | 3 | 15 | 7 | 35 | 10 | 50 | 4.35 | 0.73 |
| 학습윤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0 | 0 | 1 | 5 | 3 | 15 | 8 | 40 | 8 | 40 | 4.15 | 0.85 |
| 교과 연계형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0 | 0 | 0 | 0 | 3 | 15 | 14 | 70 | 3 | 15 | 4.0 | 0.55 |
| 개인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 0 | 0 | 0 | 0 | 2 | 10 | 9 | 45 | 9 | 45 | 4.35 | 0.65 |
|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독서) | 0 | 0 | 0 | 0 | 4 | 20 | 8 | 40 | 8 | 40 | 4.2 | 0.75 |
| 진로탐색-설계-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서비스강화 | 0 | 0 | 1 | 5 | 5 | 25 | 6 | 30 | 8 | 40 | 3.95 | 0.86 |
| 직무별 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0 | 0 | 2 | 10 | 6 | 30 | 10 | 50 | 2 | 10 | 3.6 | 0.8 |

리터러시 통합 진단 도구 개발 및 솔루션 제공(6건)이 빈번하게 언급되었으며,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 기관을 넘어 학생들의 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기초 소양 학습지원 및 문해력 교육 강화(7건)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문해력과 학습 전략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리터러시 및 정보 리터러시 능력(3건)을 갖추기 위해 도서관이 문해력 독서 및 사고력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응답자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AI 활용 지원"(12건)도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그들은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생성형 AI 활용 지원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5건)은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생성형 AI(3건)와 같은 최신 기술을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로 인식되었다. 응답자들은 AI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4건)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지도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시사한다.

응답자 중 일부는 전공 연계 자료 활용 교육과 전공별 역량 강화 지원 등 "전공 및 맞춤형 학습지원"(3건)을 중요한 역할로 강조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학생들의 전공에 맞춘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믿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수 그룹과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 명의 응답자는 "문화공간의 역할과 지역사회 연계"(1건)를 강조하는데, 대학도서관이 단순히 학습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재학생을 위한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더 넓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 3.3.3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개선 내용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개선 내용에 대한 서술형 질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6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5건), "사서 및 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4건), "교육 조직과의 연계 및 체계 강화"(4건), "전통적 도서관 기능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할 모색"(2건), "지역사회와의 연계"(1건)이 도출되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 관련하여 응답자 가운데 5명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수서, 도서대출-반납 등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에서 벗어나서 전공 계열 등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평가 등을 위한 것이 아닌 능동적인 서비스 시행이 필요합니다."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5건)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도서관에서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별히 사서가 리터러시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야 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교원 자격 부여와 같은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1건)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3건)을 통해 정규직 사서와 IT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3.3.4 대학도서관의 학내 타부서 등과 연계 방안

대학도서관의 학내 타부서나 교내외 자원/조직과 협력하여 교육 역할을 확대할 방안에 대한 서술형 질문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의 발굴과 대상 확대"(8건), "도서관의 역할 확대 내용"(7건), "교육 내용을 다각화하여 협력"(3건)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협력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융합교육센터, 학사지원팀, 취업지원센터 등과 함께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부와 지방정부에서 대학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많은 정책과 빠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대학 경영자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두 명의 응답자가 학습 공동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을 공유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전자책 서비스 강화, 아카이빙, 데이터 분석, 홍보에 대한 요구가 1건씩 도출되었다.

### 3.3.5 대학도서관의 교육 발전 방향

응답자들은 "통합적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대학도서관의 교육 발전 방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평균 4.55점), "교육 내용의 디지털화 및 최신화"에 대한 중요도 인식도 매우 높았다(평균 4.3점). 이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 5〉 대학도서관의 교육 발전 방향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중요하지 않다 | | 보통이다 | | 중요하다 | | 매우 중요하다 | | M | Std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 통합적 리터러시 교육 강화 | 0 | 0 | 0 | 0 | 2 | 10 | 5 | 25 | 13 | 65 | 4.55 | 0.67 |
|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변화시킬 교육 확대 | 0 | 0 | 1 | 5 | 3 | 15 | 7 | 35 | 9 | 45 | 4.2 | 0.87 |
| 교육 내용의 디지털화 및 최신화 | 0 | 0 | 0 | 0 | 2 | 10 | 10 | 50 | 8 | 40 | 4.3 | 0.64 |
| 혼합 학습 및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 확대 | 0 | 0 | 0 | 0 | 7 | 35 | 8 | 40 | 5 | 25 | 3.9 | 0.77 |
| 문제 중심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확대 | 0 | 0 | 1 | 5 | 7 | 35 | 5 | 25 | 7 | 35 | 3.9 | 0.94 |
|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0 | 0 | 0 | 0 | 4 | 20 | 8 | 40 | 8 | 40 | 4.2 | 0.75 |

결과이다. 동시에 교육 콘텐츠를 최신화하고, 디지털 자료와 최신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혼합 학습 및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 확대"와 "문제 중심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확대"가 평균 3.9점으로 응답자들로부터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낮은 평균을 기록하였으나, 4점에 근접하여 여전히 중요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이 이와 같은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였다.

### 3.4 대학도서관에서 통합 리터러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의견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리터러시가 언급되고 있어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조사에서 이를 '통합 리터러시'로 통칭하고 질문지에 정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리터러시(역량)가 통합된 개념으로 사전 제시하였다.

#### 3.4.1 통합 리터러시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의 중요성

대학도서관에서 통합 리터러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보 평가 및 선택'(평균 4.7점)과 '정보 윤리'(평균 4.55점)가 가장 중요한 교육 주제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정보의 신뢰성 평가와 출처 선택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 윤리를 강조하는 응답도 많았다. 즉, 디지털 사회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교육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이외에도 '정보 접근 전략'(평균 4.4점)과 '정보 활용'(평균 4.4점)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언급되었다. 검색 및 탐색과 같은 정보 접근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능력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양한 정보 도구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선순위가 낮기는 하지만 '콘텐츠 활용 능력'(평균 4.15점)과 '신기술 교육'(평균 3.95점)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콘텐츠 생성과 공유, 게시 등은

〈표 6〉 통합 리터러시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의 중요성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중요하지 않다 | | 보통이다 | | 중요하다 | | 매우 중요하다 | | M | Std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 정보 접근 전략(검색, 탐색 등) | 0 | 0 | 0 | 0 | 1 | 5 | 10 | 50 | 9 | 45 | 4.4 | 0.6 |
| 정보 활용(정보 도구 및 방법) | 0 | 0 | 0 | 0 | 1 | 5 | 10 | 50 | 9 | 45 | 4.4 | 0.6 |
| 정보 윤리(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 0 | 0 | 0 | 0 | 1 | 5 | 7 | 35 | 12 | 60 | 4.55 | 0.6 |
| 정보 평가 및 선택 (출처 신뢰성, 정보의 권위 등) | 0 | 0 | 0 | 0 | 1 | 5 | 4 | 20 | 15 | 75 | 4.7 | 0.57 |
| 콘텐츠 활용(콘텐츠 생성, 게시, 공유 등) | 0 | 0 | 0 | 0 | 3 | 15 | 11 | 55 | 6 | 30 | 4.15 | 0.67 |
| 신기술 교육(AI, 코딩, VR/AR 등) | 0 | 0 | 1 | 5 | 4 | 20 | 10 | 50 | 5 | 25 | 3.95 | 0.83 |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하며, 신기술(AI, 코딩, VR/AR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 3.4.2 통합 리터러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기능의 중요성

대학도서관의 통합 리터러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기능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감상하다'(평균 3.95점)을 제외한 17개의 기능이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측정되어 모든 기능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보통 이상의 중요성을 채택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선정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응답자의 75%가 '매우 중요하다'로 답변했으며, 평균 점수는 4.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윤리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높은 중요성을 보였는데, 응답자의 70%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며, 평균 점수는 4.65점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은 정보화 시대에서 학생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4.6점으로, 정보의 전달과 교류 과정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보에 근거하다', '참여하다', '(정보)평가

〈표 7〉 통합 리터러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기능의 중요성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중요하지 않다 | | 보통이다 | | 중요하다 | | 매우 중요하다 | | M | Std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 반성하다 | 0 | 0 | 1 | 5 | 4 | 20 | 9 | 45 | 6 | 30 | 4.0 | 0.86 |
| 시민의식이 있다 | 0 | 0 | 0 | 0 | 3 | 15 | 10 | 50 | 7 | 35 | 4.2 | 0.70 |
| (기술)적응하다 | 0 | 0 | 0 | 0 | 3 | 15 | 10 | 50 | 7 | 35 | 4.2 | 0.70 |
| 개방적이다 | 0 | 0 | 1 | 5 | 2 | 10 | 8 | 40 | 9 | 45 | 4.25 | 0.85 |
| 생산(제작)하다 | 0 | 0 | 0 | 0 | 4 | 20 | 11 | 55 | 5 | 25 | 4.05 | 0.69 |
| 정보에 근거하다 | 0 | 0 | 0 | 0 | 0 | 0 | 9 | 45 | 11 | 55 | 4.55 | 0.51 |
| 협력하다 | 0 | 0 | 0 | 0 | 2 | 10 | 7 | 35 | 11 | 55 | 4.45 | 0.69 |
| 참여하다 | 0 | 0 | 0 | 0 | 2 | 10 | 5 | 25 | 13 | 75 | 4.55 | 0.51 |
| (정보)평가하다 | 0 | 0 | 0 | 0 | 0 | 0 | 9 | 45 | 11 | 55 | 4.55 | 0.51 |
| 공유하다 | 0 | 0 | 0 | 0 | 3 | 15 | 5 | 25 | 12 | 60 | 4.45 | 0.76 |
| 의사소통하다 | 0 | 0 | 0 | 0 | 1 | 5 | 6 | 30 | 13 | 65 | 4.6 | 0.60 |
| 읽고 쓰다 | 0 | 0 | 0 | 0 | 1 | 5 | 7 | 35 | 12 | 60 | 4.55 | 0.60 |
| (정보)선택하다 | 0 | 0 | 0 | 0 | 0 | 0 | 13 | 65 | 7 | 35 | 4.35 | 0.49 |
| 감상하다 | 0 | 0 | 0 | 0 | 4 | 20 | 13 | 65 | 3 | 15 | 3.95 | 0.60 |
| (정보)관리하다 | 0 | 0 | 1 | 5 | 3 | 15 | 10 | 50 | 6 | 30 | 4.05 | 0.83 |
| 비판적으로 생각하다 | 0 | 0 | 0 | 0 | 1 | 5 | 8 | 40 | 11 | 55 | 4.5 | 0.61 |
| 윤리적으로 이용하다 | 0 | 0 | 0 | 0 | 1 | 5 | 5 | 25 | 14 | 70 | 4.65 | 0.59 |
| 개인정보를 보호하다 | 0 | 0 | 0 | 0 | 0 | 0 | 5 | 25 | 15 | 75 | 4.75 | 0.44 |

하다', '읽고 쓰다' 모두 평균 4.55점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대학도서관이 정보의 신뢰성에 기반한 판단 능력, 정보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능력과 바르게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평균 4.5점, '개방적인 생각과 태도'가 평균 4.25점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과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개방적인 것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3.4.3 통합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역량

대학도서관에서 통합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한 역량의 분석 결과, 예시로 제시한 15개 역량 모두 중요한 역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모든 역량은 평균 4.0점 이상이었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없었다. '정보 활용 역량', '정보 평가 역량',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이 평균 4.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은 구성원이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요한 역량으로는 '윤리적 역량'(평균 4.55점), '메타인지 역량'(평균 4.5점), '협업

〈표 8〉 통합 리터러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중요하지 않다 | | 보통이다 | | 중요하다 | | 매우 중요하다 | | M | Std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
| 정보 인식 역량 | 0 | 0 | 0 | 0 | 1 | 5 | 10 | 50 | 9 | 45 | 4.4 | 0.60 |
| 정보 수집 역량 | 0 | 0 | 0 | 0 | 2 | 10 | 10 | 50 | 8 | 40 | 4.3 | 0.66 |
| 정보 검색 역량 | 0 | 0 | 0 | 0 | 1 | 5 | 11 | 55 | 8 | 40 | 4.35 | 0.59 |
| 정보 활용 역량 | 0 | 0 | 0 | 0 | 1 | 5 | 6 | 30 | 13 | 65 | 4.6 | 0.60 |
| 정보 평가 역량 | 0 | 0 | 0 | 0 | 1 | 5 | 6 | 30 | 13 | 65 | 4.6 | 0.60 |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 | 0 | 0 | 0 | 0 | 1 | 5 | 12 | 60 | 7 | 35 | 4.3 | 0.57 |
| 기술적 활용 역량 | 0 | 0 | 0 | 0 | 3 | 15 | 12 | 60 | 5 | 25 | 4.1 | 0.64 |
| 읽고 쓰기(리터러시) 역량 | 0 | 0 | 0 | 0 | 1 | 5 | 9 | 45 | 10 | 50 | 4.45 | 0.60 |
| 메타인지(반성적 사고) 역량 | 0 | 0 | 0 | 0 | 1 | 5 | 8 | 40 | 11 | 55 | 4.5 | 0.61 |
| 비판적 사고 역량 | 0 | 0 | 0 | 0 | 1 | 5 | 10 | 50 | 9 | 45 | 4.4 | 0.60 |
| 문제 해결 역량 | 0 | 0 | 0 | 0 | 0 | 0 | 8 | 40 | 12 | 60 | 4.6 | 0.50 |
| 의사소통 역량 | 0 | 0 | 0 | 0 | 1 | 5 | 6 | 30 | 13 | 65 | 4.6 | 0.60 |
| 협업 역량 | 0 | 0 | 0 | 0 | 1 | 5 | 8 | 40 | 11 | 55 | 4.5 | 0.61 |
| 윤리적 역량 | 0 | 0 | 0 | 0 | 1 | 5 | 7 | 35 | 12 | 60 | 4.55 | 0.60 |
| 시민성(사회 참여) 역량 | 0 | 0 | 0 | 0 | 2 | 10 | 10 | 50 | 8 | 40 | 4.3 | 0.66 |

역량'(평균 4.5점)이 평균 4.5점 이상을 획득하였다. 응답자들은 대학도서관이 이용자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학습 과정을 반성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협력 및 공동 작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4.4 통합 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지원 내용

대학 구성원이 통합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다양한 도구와 기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4건). 홍보에 대한 요구도 3건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합이나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를 구조화하여 대표적인 사례 추출 (우수사례 소개) 등을 수행하는 홍보 전략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교수학습지원을 통한 정보 연계, 도서관과 타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원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이 1건씩 도출되었다.

이어 통합 리터러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건)에 집중되었다. 특강 등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 3.4.5 대학도서관을 위한 교육부나 KERIS의 지원내용

대학도서관에서 통합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나 KERIS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지원에 대해 응답자들은 교재와 교육 콘텐츠, 재정적 지원, 온라인 플랫폼, 가이드라인, 사서 재교육, 그리고 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항목은 "통합적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두 항목은 각각 13건의 응답을 기록하며, 교육의 기초 자료와 재정적 지원이 통합 리터러시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차지한 항목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제공"(9건)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재교육을 통한 사서의 교육 역량 강화", "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도 각각 7건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이는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사서들이 최신 리터러시 교육 방법과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다. 또한, 각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공동으로 협력하며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로 전문 강사 지원은 2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통합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 강사 지원의 필요성도 일부 응답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이는 통합 리터러시 교육이 도서관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5 기타 의견

통합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지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4건). 교육 콘텐츠 개발과 배포를 통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하고,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의견도 3건 제안되었다. 응답자들은 통합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된 정보의 수용과 생산을 위한 기초 교육이 필수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통합 리터러시 개념을 공유/확장하여 더 넓은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과목 개설 관련해서는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에서 통합 리터러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3건).

> “비교과 프로그램도 좋지만 대학수업(교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 대학도서관융합프로젝트: 교수, 학생, 대학원생, 직원 등이 그룹을 이루어서 도서관을 통한 문제해결이나 도서관 활용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사업, 더 나아가 대학 간 도서관의 장점을 서로 활용하거나 소통하는 프로젝트.. 또는 문제해결상황을 제시하고 자료의 검색부터 최종보고서까지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진행 등)”

또한, 통합 리터러시 능력 향상 프로그램 발굴 및 실행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학부생 대상 통합 리터러시 능력 강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학부생이 설계하는 통합 리터러시 능력 향상 프로그램 발굴 및 실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응답자들은 기타 의견에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통합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교양과 전공에서의 리터러시 교육의 균형, 인공지능까지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여 대학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 4. 요약 및 제언

### 4.1 요약

오늘날 대학도서관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의 향상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예산 축소와 인력 감소 등 내부적 문제까지 겹쳐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학도서관의 중점적인 전략으로 교육 및 학습 환경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즉 대학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제공

기관을 넘어 학생 학습과 성공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대학 관리자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사례를 분석한 결과, ACRL의 2016년 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지침을 넘어 대학도서관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전환 혹은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국 대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과 교수진 간 협력,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 평가 도구 개발 등의 다양한 전략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시대적 변화·정보기술 발전·사회적 요구에 맞춰 대학의 교육 방향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었다. 다만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 교육과 기술 중점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여 개선할 부분이 많았다. 이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은 단순한 정보 기술 능력 습득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학습 경험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 관리자 대상의 인터뷰 결과, 첫째, 대학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역할로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언급되었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전공별 맞춤형 학습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즉, 대학 관리자는 대학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 기관을 넘어 학생들의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핵심 교육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 인력 확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리터러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교내외 자원 및 조직과의 협력 강화가 제안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셋째, 앞으로의 대학도서관의 교육 방향으로는 통합적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교육 내용의 디지털화 및 최신화가 언급되었는데, 특히 통합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정보 평가 및 선택, 정보 윤리 교육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이는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정보 접근 전략 및 정보 활용 능력도 비교적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전통적인 정보 리터러시의 주요 기술 능력이 중요한 영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대학도서관의 통합 리터러시 학습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 환경 및 학습 시설 확충과 홍보 및 인식 제고 전략 강화가 제안되었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대학도서관은 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학습을 선도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 4.2 제언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합적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문 분야별, 학습 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정보 평가 및 윤리적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교수진 및 연구자와 협력하여 다학제적 연계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교과 과정과 연계된 이용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이용자 교육의 질적 제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대학 내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교육 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 확대는 대학의 핵심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외 대학도서관 전략을 비교한 결과, 교육 서비스 강화를 통한 대학도서관의 직접적인 가치 증명이 필수적이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교수진 및 학습지원 부서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확대를 위해 학습 시설 및 기술 환경 개선, 인력 확충, 지역사회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대학의 교육 목표와 긴밀하게 조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교육부 (2024). 제3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24~2028).

김령은, 이제환 (2017).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추이와 특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153-179. http://dx.doi.org/10.16981/kliss.48.4.201712.153

윤유라, 정영미 (2023).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 수요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229-254.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229

이시영 (2010). 대학도서관 사서의 위기와 대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47-67. http://dx.doi.org/10.16981/kliss.41.3.201009.47

이정미 (2023). ChatGPT, 생성형 AI 시대 도서관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303-3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3.303

이종욱, 강우진, 정영미 (2023). 국내 대학도서관 정책 성과에 대한 현장 인식 조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415-436.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415

이지수, 이혜은 (2019). 미국 대학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4), 107-128. https://doi.org/10.3743/KOSIM.2019.36.4.107

이지영 (2014).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장수현, 남영준 (2023). 이용자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2), 263-282.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2.263

정미정, 권나현 (2014).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조사. 정보관리학회지, 31(4), 133-159.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133

ACRL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Available: https://repository.arizona.edu/bitstream/handle/10150/105645/standards.pdf?sequence=1&isAllowed=y

ACRL (2011). Guidelines for Instruction Programs in Academ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ala.org/acrl/standards/guidelinesinstruction

ACRL (2016). 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for Higher Education. Available: https://www.ala.org/acrl/standards/ilframework

ACRL (2017). Academic Library Impact: Improving Practice and Essential Areas to Research. Available: https://www.oclc.org/research/areas/user-studies/acrl-agenda.html

Caffrey, C., Lee, H., Withorn, T., Galoozis, E., Clarke, M., Philo, T., Eslami, J., Ospina, D., Haas A., Kohn, K. P., Macomber, K., Clawson, H., & Vermeer, W. (2023). Library instruc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2022. Reference Services Review, 51(3/4), 319-396.

Cooper, D., Hill, C. B., & Schonfeld, R. C. (2022). Aligning the research library to organizational strategy.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 Ithaka S+R. https://doi.org/10.18665/sr.316656

Fullard, A. (2016). Using the ACRL framework for information literacy to foster teaching and learning partnerships. South African Journal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82(2), 46-56.

Mullins, K. & Boyd-Byrnes, M. (2024). Academic librarians' contribution to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nd learning. College & Research Libraries, 85(3), 423-441. https://doi.org/10.5860/crl.85.3.423

Schachter, D. (2019).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Critical Information Literacy Teaching in Canadian Higher Education, Doctor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United Kingdom.

Sullivan, B. T. (2011). Academic Library Autopsy Report, 2050. Available: https://www.chronicle.com/article/Academic-Library-Autopsy/125767

Withorn, T., Caffrey, C., Messer Kimmitt, J., Eslami, J., Andora, A., Clarke, M., Patch, N., Salinas Guajardo, K., & Lunsford, S. (2019). Library instruc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2018. Reference Services Review, 47(4), 363-44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Jang, Su Hyun & Nam, Young Joon (2023). A study on the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in the cultivation of generative AI literacy b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2), 263-282.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2.263

Jung, Mijung & Kwon, Nahyun (2014). Instruction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133-159.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4.133

Kim, Ryoung-Eun & Lee, Jae-Whoan (2017). Progress and special features in user instruction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153-179. http://dx.doi.org/10.16981/kliss.48.4.201712.153

Lee, Jeong-Mee (2023). A study on the data literacy education in the library of the chat GPT, generative AI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3), 303-3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3.303

Lee, Ji Young (2014). A Study on Improvements for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Program in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Lee, Jisu & Lee, Hye-Eun (2019). A study on digital humanities programs at American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4), 107-128. https://doi.org/10.3743/KOSIM.2019.36.4.107

Lee, Jongwook, Kang, Woojin, & Jung, Youngmi (2023). Field perception analysis on policy

outcomes of academic librarie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4), 415-436.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415

Lee, Si-Young (2010). Crisis and response at librarians at university librarie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47-67. http://dx.doi.org/10.16981/kliss.41.3.201009.47

Ministry of Education (2024). The 3rd Comprehensive Plan for University Library Advancement (2024-2028).

Youn, You-Ra & Jung, Youngmi (2023). Analysis of user demand for university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4), 229-254.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229